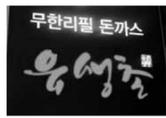




광수비어



유생촌



쿠스쿠스



아이스 까까

프랜차이즈 시장 지역 토종브랜드 돌풍

맥주집·떡카페 등 업종 다양화... 대기업과 경쟁서 안밀려 동업 사례도 늘어... 지역 상권 부활 가능성 기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지역 토종브랜드의 활약이 뜨겁다. 이들 토종브랜드는 진출 업종이 커피숍이나 음식점 위주에서 맥주집, 떡카페 등으로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뜻 맞는 이들이 함께 디지털 카페를 내는 등 동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브랜드 가운데 커피전문점의 쌍두마차격인 '커피북스 집'과 '커피에담'은 물론 돈까스 전문점인 '유생촌' 등이 점포를 확대하며 성업중이며 최근에는 소점포 맥주집이나 세계과자점 등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토종 브랜드 약진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역 상권의 부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 사례'라며 반기고 있다.

세계과자점의 인기와 함께 등장한 토종 프랜차이즈 '아이스 까까'의 돌풍이 좋은 예다. 지난 7월 지역 스마트프렌치 전문 개발업체인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창

업한 세계과자와 유기농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프랜차이즈 '아이스 까까'는 창업 한 달만에 광주에만 6호점을 내며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매장 개설 문의가 잇따르면서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갑형 대표는 "아이스 까까는 세계과자는 물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최고급 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신개념 휴식공간"이라며 "가맹점으로서의 성공과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로서의 이미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창업한 '광수비어' 역시 광주 주시 북구 오치동 본점을 시작으로 1년여 만에 점포가 10곳으로 늘어난 광주 토종 프랜차이즈다. 전남과 서울, 경기권에도 진출했으며 현재는 총 18개 매장으로 확장했다.

2009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명성을 얻고 있는 떡카페 브랜드 '에다손'도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지역 토종 프랜차이즈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토종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업종 다양화 등 변신을 꾀하며 약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 세계과자점 프랜차이즈 아이스 까까 광주 봉선동 본점. <아이스 까까 제공>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쿠스쿠스'는 2011년 광주에서 오픈한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며 최근 7번째 점포를 내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채소와 한식·중식·분식 뷔페를 런칭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토종 프랜차이즈 성공에 힘입어 디지털 카페나 음식점을 동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

다. 동업이나 창업 점수를 구하기 쉽고, 유행에 민감한 외식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브랜드들보다 가맹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기존 브랜드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창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덕분"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투자재원 500억 출연 협약식'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현대·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동반성장 투자재원 500억 낸다

매년 100억씩 5년... 출연 협약식

현대·기아자동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진행 현대차그룹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

반성장 투자재원 500억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매년 100억원씩 5년 동안 총 500억원을 출연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와 인력개발, 제조업의 정보통신기술 접목 등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새 주인 10조 5500억원에 최종 낙찰

감정가보다 3배 높아

현대차그룹이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부터 서울 삼성동 시대를 열게 됐다.

한전은 18일 지난 29일부터 진행해 온 부지 입찰 절차를 종료하고 응찰자들의 제출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최고 가격을 써낸 현대차그룹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낙찰 가격은 10조5500억원으로, 그동안 부지 감정가로 알려진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다.

한전은 입찰 하한선인 예정가격으로 잡아 놨던 금액도 부지 감정가와 동일한 3조3346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예정가격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되는 거액을 현대차그룹이 써낸 것이다. 입찰에는 현대차그룹 외에도

삼성전자 등 응찰자 13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응찰자 11곳은 보증금을 안 냈거나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쓰는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처리됐다.

한전은 "이번 매각 업무를 집행하면서 특혜시비와 험담매각 해소에 최대 역점을 뒀다"며 "공기업인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매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26일까지 현대차그룹과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품에 안으면서 2020년에는 삼성동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계열사를 아우르는 신사옥을 짓고,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047.74 (-14.87)	금리 2.37%
코스닥 576.97 (+1.99)	환율 1043.40원 (+8.50)

효성, 타이어코드 부문 기술중심 영업조직 개편

조현상 부사장 "고객 미래 니즈 충족시킬 것"

효성이 타이어코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중심 영업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부문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효성은 기존 타이어보강재 퍼포먼스 유닛인 섬유영업팀 외에 고객사 요구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테크니컬마케팅팀을 신설했다. 테크니컬마케팅팀은 앞으로 글로벌 타이어 기업과 기술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트렌드를 공유하고 고객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주도한 조현상 산업자재 PG장(부사장)은 "테크니컬마케팅팀의

전문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차별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효성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고객의 고객까지 고려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미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내부에 넣는 섬유 재질의 보강재로, 효성은 타이어코드 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4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터미널,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이 1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서비스터미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전경.

금호터미널은 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24시간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실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신뢰성'을 높여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냈다. 특히 지역별 평가 가운데 광주·전남권에 거주하는 10·20대 선호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쇼핑과 외식, 문화 등의 여가 생활을 한번에 즐기려는 몰링(Mallings)문화가 확산하면서 외식 문화와 선진 공연 문화를 선도해온 점도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임동률기자exian@

신보 '좋은 일자리 기업' 광주·전남 4곳 선정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홍운기·이하 신보)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자리 기업(GWP : Good Work Place)'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정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전국적으로 좋은 일자리 기업 총 69개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대호산업(광주), ㈜비온시아노베이타(광주), 유승플랜트(여수), ㈜코스(장성)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보는 그동안 고용의 양적인 부분만 평가해 고용창출 기업에게 우대보증을 지원해 왔으나 좋은 일자리 기업 제도

도입을 계기로 고용의 양적·질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보는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 차감 등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잡매칭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 인하, 임직원 대출에 대한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신보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 '창조금융센터'를 통해 2016년까지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좋은 일자리 기업 500여개를 선정,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NAVER 광주 스피리튜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강의를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구도청 남양주농협 소리큐보청기

소리큐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